

# 중동·반도체 우려에 ‘셀코리아’… 외국인 비중 올해 최저

국제 유가 상승에 불확실성 증가 자금 빠지며 시총 점유율 36.66% 지분 높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주목



ChatGPT로 생성한 ‘한국주식시장’ 관련 이미지.

한국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고 있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은 올해 최저치인 36%대로 떨어졌다.

미국과 이란전쟁이 한층 격화하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달러 강제 현상이 두드러진 데다 구글이 인공지능(AI) 추론 영역에서 메모리 사용량을 6분의 1로 줄이는 ‘터보퀀트’ 기술을 공개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려가 더해지면서 외국인의 ‘셀(sell) 반도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2의 ‘동학개미’의 등장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지만 이들의 셀 코리아가 계속되고 미국발 금리 인하 지연과 중동 전쟁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증시가 큰 조정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외국인 시총 비중 하락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

자는 3월 이후 이달 3일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35조8496억원 순매도했다. 하루 평균 순매도 규모가 1조4339억원인 셈이다. 특히 지난달 4일과 10일, 18일, 이달 3일 등 나흘을 제외하고는 연일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달 31일 기준 36.66%까지 축소됐다.

외국인의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해 말 36.27%를 기록한 이후 점차 확대돼 지난

2월 26일에는 38.10%까지 불어났었다. 이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하면서 강한 매도세에 비중이 축소됐다.

다만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는 약화하고 있다. 지난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종전 기대감이 일순간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코스피가 4.47%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순매도액은 1406억원에 그쳤다. 이튿날인 3일에는 7994억원 순매수

하기도 했다. 12거래일 만의 순매수다. 이에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31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200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이달 들어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삼전 실적 기대 vs 중동 리스크 확대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다시 복귀할지 주목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주목한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판 종목이 삼성전자다. 지난 3월 이후 18조 4075억원어치를 팔았다. 전체 순매도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거래량 기준으로는 약 1억주(9949만주)를 순매도했으며, 전쟁 이후 대부분 거래일에서 매도 우위 흐름이 이어졌다. 외국인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이달 3일 기준 48.40%로, 2013년 9월 이후 약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하락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며 국내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면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사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삼성전자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21조3946억

원, 41조8359억원으로 추정된다.

정해창·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대내적으로 7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실적과 경기 펀더멘털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이미 지정학적 불안 상황에서 견조한 3월 수출을 확인한 가운데 펀더멘털로 시선이 이동할 때 회복 강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상승은 걸림돌이다.

박승민 국제금융센터 책임연구원은 “중동전쟁 발발 후 한국 경제의 높은 국제유가 민감도, 그간 누적된 주가 부담 등이 외국인의 주식 수요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유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했다.

국제 유가도 치명적이다. 노무라증권은 “중동 전쟁이 2~6개월간 지속되며 국제유가가 배럴당 110~130달러 수준에 형성될 경우 한국의 기업 마진 및 경제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전쟁 한달… 원유 ETN 상승률 상위권 석권

안전자산 ‘금·은’ 가격 상대적 부진 ‘삼성 블루버그 레버리지’ 상승률 1위

중동전쟁이 발발한 후 약 한 달간 원유 관련 투자상품들이 상장지수증권(ETN) 수익률 상위권에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달러 선호가 강해지면서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금·은 ETN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거래일인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ETN 상승률 1위는 ‘삼성 블루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B’가 차지했다. 해당 상품은 이 기간 2만4320원에서 7만2985원으로 200.10% 급등했다.

‘신한 블루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B’(198.07%), ‘한투 블루버그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B’(193.66%), ‘하나 S&P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 B’(182.15%), ‘삼성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181.99%) 등이 뒤를 이었다.

레버리지 WTI 원유 선물 ETN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 상장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의 일일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외에도 수익률 상위 6~11위까지 모두 원유 상승에 베팅하는 ETN이 포진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원유 가격을 기초지수로 하는 상품의 주가가 큰 폭 상승한 것이다.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 2일까지 WTI는 66.4%, 브렌트유는 49.6% 각각 상

승했다. 현재 국내에 상장된 원유 관련 ETN은 WTI에 투자하는 상품만 있다.

금·은 ETN은 인버스 상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미래에셋 인버스 2X 은 선물 ETN B’(41.46%), ‘신한 인버스 2X 은 선물 ETN(H)(37.21%), ‘신한 인버스 2X 금 선물 ETN’(30.05%), ‘삼성 인버스 2X 은 선물 ETN(H)(28.13%)이 각각 상승률 12, 14, 18, 19위로 집계됐다.

반면 금·은 가격 상승에 베팅한 레버리지 상품인 ‘KB S&P 레버리지 은 선물 ETN(H)(-37.46%), ‘삼성레버리지 은 선물 ETN(H)(-36.79%), ‘신한 레버리지 은 선물 ENT(H)(-36.26%), ‘N2 레버리지 은 선물 ETN(H)(-35.28%)은 수익률 하위 11~12위와 14~15위에 나란히 올랐다.

/신하은 기자 godhe@

## 신한탄소중립펀드, 수탁고 1000억 돌파

1년 수익률 105.18% 기록

신한자산운용은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H)’의 수탁고가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펀드는 올해에만 272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며 1051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형 공모펀드에서 약 1조 2791억 원의 자금이 유출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수익률도 긍정적이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H)’는 1년 수익률 105.18%를 기록하며 동일 유형인 해외주식형 펀드 평균 수익률 20.84%를 상회했다.

‘신한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펀드(H)’는 AI 인프라(반도체·데이터센터·전력망)와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원전·전력설비) 등 구조적 성장 산업에 선별 투자하는 글로벌 주식형 펀드다. 탄소중립을 단순한 ESG 테마가 아닌 AI 시대의 에너지 인프라 확장 관점에서 접근하며 차별화된 투자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주요 투자종목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SK하이닉스 ▲버티브홀딩스 ▲GE 버노바 ▲블룸에너지 ▲루멘텀 등으로, AI 반도체와 전력 인프라, 친환경 에너지 등 ‘AI +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신하은 기자

## 한투증권 “신한카드로 발행어음 투자”

증권사 앱 설치 없이 거래 가능

한국투자증권은 신한카드와 제휴를 통해 카드 플랫폼 기반 발행어음 투자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고, 총 1500억원 규모의 특판 상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증권과 카드 대표 사업자 간 협업이라는 점에서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서비스는 신한카드의 통합플랫폼 ‘신한 SOL페이’ 내 ‘자산’ 탭에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상품을 소개한다. 고객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운영하는 웹뷰(WebView) 방식을 통해 상품 조회·가입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증권사 앱 설치 없이도 카드 플랫폼 내에서 투자상품 거래가 가능한 인앱(In App) 서비스라는 점이 특징이다.

앞서 인터넷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발행어음 투자 저변을 넓혀 온 한국투자증권은 이번에는 카드와 투자가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선보이며 고객 편의를 한층 높였다. 공휴일을 포함해 365일 24시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며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다.



서비스 출시를 기념한 특판 발행어음도 선착순 판매한다. 연 3.5% 수익률의 1년물과 연 3.3% 수익률의 6개월물(세전, '26.3.20) 총 1500억원 한도 소진 시 판매가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발행어음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단기 투자 상품으로, 안정적인 신용도와 경쟁력 있는 금리를 바탕으로 단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허정윤 기자

## 교보증권 로비 새단장… 디지털 공간 조성

고효율 LED 전광판 설치

교보증권은 본사 1층 로비를 새롭게 단장하고 방문객과 임직원을 위한 소통 중심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단순한 공간 개선을 넘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와 친환경 요소 확대를 함께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로비 전면에는 대형 디지털 전광판을 새롭게 설치해 실시간 주식 시장과 주요 금융지수, 다양한 사내 소식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로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해 에너지 절감과 공간 개선 효과를 높이는 한편, 식물 조경을 더해 자연 친화적인 휴식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로비는 고객이



교보증권 임직원들이 새롭게 단장한 교보증권 본사 1층 로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증권

회사를 처음 접하는 공간이자 브랜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접점”이라며 “이번 공간 개편을 통해 고객과 임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하고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